

주 5일 근무, 도시교회에 바란다

김 유 석(목사, 전북 남원 원천교회)

‘노동과 쉼 그리고 신앙’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대두되는 화두가 아닐까 한다. 이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양쪽의 평가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다.

필자는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에 대한 점을 농촌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시간과 지리적인 제약이 있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인들의 생각을 물을 수는 없어 아쉬웠지만 개인의 생각보다는 여럿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힘이 닿는 대로 물어서 내용을 정리하며 글을 쓰고자 한다.

도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요즘교인들 중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에는 예배까지도 쉬면서 자기 취미 여가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추세

인데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교인들의 휴식 문화가 정착되면 교회는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여 선교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답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주 5일 근무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휴식의 시간이 많아지면 다양한 삶의 문화가 형성되어질 것인데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중심 일꾼들이 되었을 때 교회는 현재 유럽의 많은 교회들처럼 실제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교회들이 잠잠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라웠다.

필자는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도시, 농촌교회가 지닌 생각들과 아직은 미약하지만 교회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특별히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더 좋은 선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농촌목회자로서의 바람을 적어 보고자 한다.

농촌교회의 반응을 물으니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농촌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고 물으니 아직은 솔직히 실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로는 농촌이란 삶의 자리가 주 5일 근무와 특별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도시 교회 교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현상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자연을 찾아 농촌지역을 여행을 하며 교회를 들리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도 관광지 주변의 시골교회여야 특수(?)를 누리지 않을까, 대부분의 농촌교회들에게 주 5일 근무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에 대한 물음에는 소극적인 내용의 답변들이 대부분이었다.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각도 거의 같았는데 도시교회 교육의 틀 안에서 농촌교회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갖게 하

는 교육을 받지 못한 교인들이라면 그들이 5일 근무제라는 시간의 테두리 안에서 농촌교회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발걸음을 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바라는 점을 물으니 농촌교회들이 그동안 수 차례 이야기를 하였던 대로 젊은 인적 자원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서 도시의 교회가 농촌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도시의 교인들이 농촌과 농촌교회를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프로그램들이 도시교회와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 함께 해보고 싶다는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도시교회의 반응을 물으니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는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그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들을 구상해 보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석 상황도 그리 많지 않고, 한 교인이 매주 빠지는 것이 아니라서 별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으니 아직 한국 교인들은 자기 교회의식이 강해서 주일성수를 본 교회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아직 우리의 휴식 문화가 다양하게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결국 도시교회 목회자들은 주 5일 근무제는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우려는 된다고 하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도시교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정도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교회들의 목회전략들도 소극적이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모이기 위한 것들로써 교인들의 취미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었다. 교회에 따라서는 신앙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교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들이 현재의 교회를 유지하고자 하여 교인들을 밖으로 내보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전원교회를 꿈꾸는 교회도 있었지만 이러한 생각은 기존의 농촌교회 정서와는 많은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고,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교인들의 이탈을 농촌교회와 연관 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보겠다는 교회는 극히 드물어 아쉬운 마음이었다.

평신도들에게 물으니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쉼의 시간이 많아져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관계를 회복할 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하였고, 또한 그동안 바쁜 삶에 지쳐서 할 수 없었던 개인의 취미 여가 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가짐으로써 건강한 삶을 위해 투자하고 싶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신앙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니 기성세대인 자신들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겠지만 만일 도시교회들의 교회 안에 교인들을 모아 두려는 기존의 종교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경우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

평신도로서 우려되는 점을 물으니 세상의 문화가 유흥 오락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아직 건강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현재 문화 정서 상 많은 유혹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 나왔다.

이야기를 나누어본 결과 도시교회와 농촌의 교회들은 아직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편이었고,

설사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머무는 소극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가톨릭과 타종교의 경우는

가톨릭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많은 수도원 경우에는 금요일 밤부터 주일 오후까지에 이르는 다양한 영성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신도들에게 유익한 신앙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었고, 도시와 농촌교회의 관계도 사목적 차원에서 이미 접근과 노력을 시작하고 있었다.

타종교의 경우도 여가 시간에 대한 신도들의 교육이 매우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찰에서는 생태학교를 준비하여 가족들이 함께 주말을 이용하여 찾아와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함으로 현대인들의 감성에 다가서고 있었고, 신도들에게 다양한 내용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곳을 찾는 이들이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필자는 여러 교회 목회자 및 평신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 5일 근무제 실시가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개교회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지금 교회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성장 중심으로 노력을 집중하는 동안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통적으로 지녀왔던 공동체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라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교회 모습을 갖게 되었는데 서로를 향한 특별한 기도와 노력이 없는 한 점점 더 양극화될 것으로 보인다.

답은 공동체성에서

지금은 교회가 지닌 공동체적 정서가 매우 소중하게 표현, 발휘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주 5일 근무제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 앞에 이제 현재의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대처 방법들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의 성숙한 신앙이 그런 소극적이고 식상한 발상들 앞에 자신의 신앙을 위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들은 조금 더 용기 있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농촌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의 바램을 적어본다.

1) 농촌교회를 선교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대화해 가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한다. 지금 농촌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선교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농촌교회는 소중히 여겨야 할 현장이다. 도시의 삶에 지친 이들이 그리워하는 자연 안에 공동체적 정서를 갖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먹거리를 생산해 내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회가 함께 선교전략을 구상하여 자연 안에 존재하는 맑은 공동체적 영성의 흐름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대화 공간을 함께 마련해 가면 어떨까 한다.

2) 도시교회와 농촌교회가 함께 평신도를 만나고 함께 교육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쉼의 시간이 많아지면 도시인들이 자연과 농촌을 찾는 기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간파한 가톨릭과 타종교에서는 이미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현대인들의 정서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부분의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생각하는 경우는 일년 예산을 결정할 때 도움을 줄 교회로써,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할 곳으로써 정도이다.

그러나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삶의 자리가 다른 두 형태의 교회들이 연합할 때 좋은 교육 여건을 가질 수 있다. 광주 지역의 한 교회가 필자의 교회를 찾아와서 도시교회 교인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농촌교회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보자고 제의해 왔던 적이 있다. 내용은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사와 제직으로 팀을 구성하여 농촌교회로 가서 하루를 자고 농촌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함께 시골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된 이유를 물으니 도시문화에 쩌들어 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농촌교회와 삶의 자리가 지닌 신앙의 맑은 공동체적 영성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이었다. 그분은 도시교회가 어쩔 수 없이 지니게 되는 한계를 분명히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목회자는 미래를 생각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했다.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교회에 한 주일씩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나누며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은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경직되었던 도시교회 교인들의 정서를 맑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3)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진행해 왔던 도·농 교류의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으면 한다. 지금까지도 많은 도·농의 교회들이 직, 간접적으로 교류를 맺고 있다. 다만 지리적 여건과 바쁜 생활로 인해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들이 적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속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 한 경우가 많았다. 주 5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러한 사정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두 형태의 교회들이 좋은 나눔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교인들을 교육하여 진행한다면 한 농촌목사의 말처럼 사람은 없어도 땅과 물 그리고 좋은 공기는 여기 있

으니 '농촌 일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고, 그것이 좀더 발전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나눌 수 있게 되면 더 좋겠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서로를 생각하게 하는 공동체 정서를 키워 줄 것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루어 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는 말에 공감을 표해본다.

평상시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용의 원고를 부탁 받고서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덕분에 도시와 농촌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노동과 쉬’ 그리고 신앙

지금까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교회 성장을 위해 정신 없이 달려왔던 우리들에게 ‘쉬’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게 생각되었고, 목회자 역시 분명한 생각 없이 각자의 처지에서 나름대로 대처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교회라는 테두리를 불편해 하며 세상의 편리함을 즐기는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용기를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 한가지 지혜로 서로 삶의 자리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도시와 농촌의 교회들이 자주 만남을 갖고 서로가 지닌 것들을 함께 나누며 신앙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